

- 주요 뉴스: 미국 민주당의 사회보장기후대응 자출 계획, 인플레이션 논란을 증폭
 - EU 집행위원회, 유로존 성장률의 금년 전망치를 상향. 이후 둔화될 것으로 예상
 - 영국 3/4분기 성장률, 전기비 1.3%로 전기(5.5%) 및 예상치(1.5%) 하회
 - 중국 헝다그룹, 달러화 채권 이자 지급으로 공식 디폴트를 모면
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경기회복 기대가 상충

주가 상승[+0.1%], 달러화 강세[+0.3%], 금리[휴장]

-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 기업실적 호조 전망과 반도체 관련주 강세 등이 견인
유로 Stoxx600 지수는 중국 우려 완화와 양호한 기업실적 등으로 0.3% 상승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조기 통화긴축 가능성 등으로 16개월래 최고 수준
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2%, 0.1% 하락
- 금리: 미국 채권시장은 Veterans Day로 휴장
독일은 ECB의 내년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2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81.9원, -0.1원) 포함, 한국 CDS 하락

		11/11일	11/10일	전일대비			11/11일	11/10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649.3	4,646.7	0.06%	국채 금리 10y	미국	휴장	1.55%	-
	유럽	485.29	483.76	0.32%		독일	-0.23%	-0.25%	2bp
	중국	3,532.8	3,492.5	1.15%	CDS 5y	한국	19bp	20bp	-1bp
	일본	29,278	29,107	0.59%		중국	54bp	53bp	-1bp
	한국	2,924.9	2,930.2	-0.18%	위험 지표	EMBI+	-	368	-
환율	달러지수	95.16	94.85	0.33%		VIX	17.66	18.73	-5.71%
	유로화	1.1451	1.1479	-0.24%		WTI유	81.59	81.34	0.31%
	엔화	114.06	113.91	-0.13%	원자재	구리	440.3	432.3	1.85%
	위안화	6.3914	6.3888	-0.04%		금	1,862.1	1,849.6	0.68%
	원화	1,180.8	1,180.9	0.01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민주당의 사회보장·기후대응 지출 계획, 인플레이션 논란을 증폭

- 민주당은 2조달러 내외의 사회보장·기후대응 지출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, 공화당은 이러한 대규모 지출이 기존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비판.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(연간)은 6.2%로 31년 만에 최고치 경신
-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기반 확충 등으로 공급 병목 등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. 또한 17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정부의 지출계획을 지지했다는 사실을 부각시켜 관련 논란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
- Moody's Analytics는 3조달러(사회보장·기후대응 및 인프라 투자) 지출 적용 시 2022~24년 0.3%p의 추가 물가 상승을 예상.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가 예상되나, 판단의 핵심은 미래를 위한 합리적 투자 여부라고 강조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EU 집행위원회, 유로존 성장률의 금년 전망치를 상향. 이후 둔화될 것으로 예상

- 금년 성장률이 5.0%를 기록하여 이전(4.8%) 대비 상승을 전망. 다만 2022, 23년에는 4.3%, 2.4%에 그칠 것으로 추산. 2021, 22, 23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.4%, 2.2%, 1.4%로 전망하여,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관측
- 또한 GDP 대비 부채비율도 2021~23년 기간 하락할(100%→97%) 것으로 추정. Paolo Gentiloni 경제 커미셔너는 현재 경제가 회복에서 확장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지만, 향후 원자재 공급 부족, 공급망 혼란 등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고 평가

■ ECB 설문조사, 유로존 소비자의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은 3%

- 향후 12개월 및 36개월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각각 3%, 2%. 필립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기 측면에서 소비자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변하지 않고 있으며, 이는 최근 물가상승이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

■ 골드만 삭스, 유럽 주가는 추가 상승이 가능

- 저금리와 양호한 기업실적, 낮은 수준의 밸류에이션 등을 고려할 때 STOXX 600 지수는 내년 13% 상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

■ 영국 3/4분기 성장률, 전기비 1.3%로 전기(5.5%) 및 예상치(1.5%) 하회

- 통계국에 따르면, 이번 결과는 2021년 1/4분기 이후 최저이며 코로나 19에 따른 봉쇄 조치 등이 주요 원인. GDP 규모는 코로나 19 발생 이전인 2019년 말에 비해 적으며, 회복률도 역대 G7 국가(독일, 이탈리아, 프랑스)와 비교하여 저조한 수준
- Capital Markets의 Paul Dales는 최근의 성장률 둔화 고려 시 영란은행이 적극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시장 예상에 의구심이 든다고 평가

■ 중국 6중전회 종료, 3차 역사결의 채택으로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 토대를 강화

- 역사결의는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새로운 비약을 이루었다고 평가. 시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역사결의를 통해 사망 전까지 정권을 장악했던 마오쩌둥, 덩샤오핑의 반열에 오른 것으로 진단

■ 중국 헝다그룹, 달러화 채권 이자 지급으로 공식 디폴트를 모면

- 헝다그룹은 11/10일(수) 만기였던 달러화 채권 이자를 복수의 채권자에게 지급. 다만 시장에서는 대규모 부채에 따른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

■ 중국 알리바바의 광군제 기간(1~11일) 매출, 사상 최고치 기록. 증가세는 둔화

- 알리바바에 따르면, 같은 기간 매출액은 5403억위안으로 전년도(4982억위안) 대비 늘었지만, 증가율(8.5%)은 예년의 20%대 수준을 하회했다고 발표. 코로나 19에 따른 봉쇄조치와 당국의 자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강화 등이 원인으로 거론

■ OPEC, 금년 원유수요는 고유가 영향 등으로 당초 예상을 하회할 가능성

- 금년 원유수요 증가량을 일일 565만배럴로 예상하였으며, 이는 이전에 비해 일일 16만배럴 감소한 수준. 고유가 지속이 세계경제 회복을 저해하면서 원유수요가 코로나 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시기는 2022년 이후가 될 것으로 추정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1/11 현지시각 기준)

- 영국 9월 산업생산(전월비): , 8월(0.8%), 예상치(-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1/12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뉴욕 연은 총재 강연, 9월 JOLTS 구인건수, 11월 미시건대 소비자태도지수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문제, 각국의 현안 등으로 적극 대응은 기대난 - 블룸버그

(Inflation Is Now Global, But the Traps Are Local)

- 미국 소비자물가는 1990년 이후 최대 폭 상승하고, 중국 생산자물가는 26년래 최고치 경신. 유로존 소비자물가도 ECB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상회. 하지만 각국의 상이한 국내 현안들로 과거 플라자 합의와 같은 통일된 대응은 어려울 전망
- 중국은 성장 둔화 우려로 오히려 완화적 정책 시행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. 미국은 테이퍼링 조기 종료 시 조기 금리인상 신호로 해석되어 2013년과 같은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,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

■ 중국 정부, 부동산 위기 억제를 위해 일부 규제 완화로 선회할 가능성 - WSI

(China Gets Slightly Less Tough on Property Developers)

- 부동산 위기는 헝다그룹으로 시작하여 여타 기업으로 전이되고 있으며, 채권 및 주식시장에도 혼란을 초래하는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. 이에 당국은 부실기업의 자산 매각 시 인수 기업의 부채비율이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
- 또한 정부는 일부 부실 개발업체의 중기 채권 발행을 허용했고,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의 허가를 검토하는 등 추가적인 완화 대책 추진이 예상. 이와 같은 정부의 변화는 분양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부동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
■ COP26의 기후대응 요구, 기업들의 실질 노력은 부족할 전망 - Financial Times

(Big business and COP26: are the 'net zero' plans credible?)

■ 미국 인플레이션의 심화, 테이퍼링 일정이 가속화될 소지 - 블룸버그

(A Taper Tantrum Could Follow This Inflation Spike)

■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 자체, 취약계층 피해 등의 부정적 영향도 증가 - Financial Times

(The Fed's inflation miscalculations risk hurting the poor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jsjeong@kcif.or.kr